

(주)파우스

## (주)파우스, 아시아 최초 ‘꼬리 부착형 분만 알리미’ 공급한다!

축산기자재전문기업 (주)파우스(대표 이재용)가 소의 분만과정에서 초산과 난산, 역산 등의 문제를 100% 해결해주는 제품을 수입, 공급을 시작했다. 영국 ‘MooCall’사에서 아시아 최초로 수입해 들어온 ‘무콜 꼬리 부착형 분만 알리미(이하 ‘무콜’)가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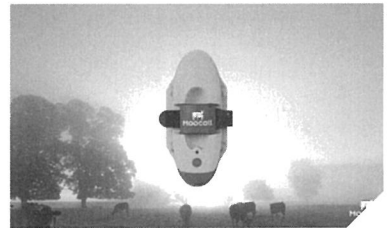
‘무콜’의 작동원리는 소꼬리의 행동패턴을 분석해 분만징후를 잡아내는 방식이다. 파리나 모기를 내쫓기 위해 꼬리를 움직일 수도 있고 분만징후로 나타나는 꼬리의 움직임도 있을 테지만, 무콜은 6만 여개의 행동패턴을 분석해 정확하게 진단한다. 사용방법은 분만하기 3~7일 전에 무콜을 꼬리에 장착해놓으면 되는데, 분만이 다가올수록 1·2·3단계로 나눠 문자로 알림이 온다. 3단계 알림 시에는 약 1시간 안에 분만을 한다는 뜻이며,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알림이 오면 난산과 역산, 유산, 쌍산이 의심된다는 긴급메시지다. 이때 미리 수의사를 불러와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폐사율을 줄일 수 있다.

무콜은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일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충전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완충되며 30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 얼마가 남았는지 문자로 알려주는 기능도 겸비하고 있는데다 연 평균 50~60두에 사용할 수 있다.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장점이다. 전국 통신망을 활용하기 때문인데, 어디에 있든지 문자로 알람을 받을 수 있다. 무콜은 ‘ICT 융복합 사업’ 적용 모델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다 한 번 구입하면 5년간 추가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재용 대표는 “공식적으로 판매가 시작되는 5월부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콜 관련 전담직원을 채용,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무콜 제품 이외에도 파우스에서는 송아지를 케어는 물론 설사·호흡기 질환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유럽의 선진 제품을 국내 농가에 공급하고 개발·투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㉞



▲(주)파우스 이재용 대표가 ‘무콜 꼬리 부착형 분만 알리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콜 꼬리 부착형 분만 알리미